

# 창작의 뿌리에 대한 고민과 성찰

### 이이남 '다산, 예' 전 개막

반고흐 작품 재해석... 20점 선배 디지털 시대 '내면의 빛' 메시지 자개·티타늄거울 활용 신작 눈길



이이남 작가가 자신의 작품 '고흐 해바라기'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종필 사진작가 제공

“작품을 감상하는 순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번 전시가 많은 사람에게 울림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의 작품에서 빠지지 않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 작가는 자기 삶의 뿌리와 철학의 메시지를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빛’을 다루는 미디어 아트작가 시각에서 재해석한 것이다. 그의 시각을 통해 재해석된 명화와 조각, 그리고 작품들은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된다. 동시에 삶의 전부가 고스란히 담긴 탓에 이 작가를 알고 싶다면 주목해도 좋을 전시다.

지난 12일 화순 다산미술관에서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의 '다산, 예(藝)' 오픈 행사가 열렸다. 전시를 찾은 관람객들은 이 작가의 작품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전시장을 찾은 초등학교생들은 이 작가의 작품에 OHP필름을 깔고 새로운 드로잉을 입혀보며 그의 작품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전시는 이 작가의 신작을 포함해 20여점의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이번 전시 테마는 '뿌리'다. 작품 선점부터 배치까지 이 작가의 '삶의 뿌리'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기존의 영상을 활용했던 미디어아트와는 다르게 자개와 티타늄 거울을 활용한 이색적인 신작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 작가는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로 명성을 떨치기 전 조선대학교 대학원에서 조소를 전공했다. 이번 전시에서 창작의 근원인 '뿌리'를 찾는다는 숨은 의도를 유명 조각상에 녹여냈다. 대표적인 작품이 '다비드 건담', '생각하는 건담', '헤라클레스 건담'이다. 작품은 동양의 멋과 빛이 담긴 자개를 활용했다. 서양대표 조각상을 건담 시리즈로 재해석한 작품은 동양의 멋이 담긴 자개와 더해져서 어디인가 모르게 흥미롭게 보인다.

이처럼 전시장 곳곳에는 티타늄 거울을 활용한 작품들이 많았다. 이번 신작에 티타늄 거울을 활용하게 된 배경은 작품 속으로 관객을 이끌어오기 위함이다. 한편으로는 관람객들이 자신의 모습을 작품 속으로 투영하길 바라는 숨은 의도도 담겼다.

이 작가는 “인상주의 화가들이 정물화를 그리다 밖으로 나와 빛을 그리기 시작했다”며 “최근 미디어아트 빛 작업을 하며 본질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했다. 창작을 하는 순간마다 어린 시절 기억하는 고향 풍경은 물론 삶의 뿌리가 창작의 근본이 됐다”고 말했다. 전시는 오는 9월 15일까지 열린다. /이나라 기자

미약한 사람이 거대한 모빌 슈트를 입고 강인하고 남성성을 드러내는 것에서 착안해 껍데기 속에 담긴 사람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최첨단 무기로 중무장한 전쟁의 아이콘이 사색과 예술의 태도를 취하며 내면에 있는 인간의 고민을 담아낸다. 껍데기를 상징하는 자개가 부서지고 피부에 이식되며 빛으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한다.

이 작가는 “인상주의 화가들이 정물화를 그리다 밖으로 나와 빛을 그리기 시작했다”며 “최근 미디어아트 빛 작업을 하며 본질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했다. 창작을 하는 순간마다 어린 시절 기억하는 고향 풍경은 물론 삶의 뿌리가 창작의 근본이 됐다”고 말했다. 전시는 오는 9월 15일까지 열린다. /이나라 기자



다산미술관은 오는 9월 15일까지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다산, 예' 기획초대전을 개최한다. /이나라 기자



김봉진 '옛정' /광주문화재단 제공

## 청각장애인 김봉진 작가 미술대전 구상부문 특선

### “김기창 작가 뒤를 잇고 싶어”

“작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에 감사합니다.”

제41회 대한민국미술대전 구상부문에서 '옛: 정(古情)'으로 특선을 받은 김봉진 작가(사진)의 소감이다.

대한민국미술대전은 1981년 막을 내린 대한민국미술전람회(약칭 국전)에 뒤이어 1986년부터 한국미술협회가 주관해 오고 있는 대한민국 미술계에서 가장 큰 공모전이다. 김 작가는 청각장애를 딛고 일반인 작가와 당당히 경쟁해 특선 입상의 쾌거를 이뤘다.

김 작가는 지난 1987년부터 독학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전시, 사진, 책을 내며 구상을 연구했다. 동료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일본과 유럽의 그림을 보고 익히는 과정을 통해 영감을 얻기도 했다.

특선작인 '옛: 정(古情)'은 작가의 모친댁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으로 '나'자 삼각형 구도를 바탕으로 균형을 맞췄다. 명암을



잘 드러나게 표현해 마치 어머니의 품을 연상시킨다. 작품은 20일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화랑전시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김 작가는 오는 11월 광주문화재단 '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 레지던스 작가 개인전시'를 통해 광주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김 작가는 “광주문화재단의 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 입주작가로 선정돼 작업공간을 지원받아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청각장애인인 윤보 김기창 작가의 대를 잇고 작가의 이름을 딴 미술관을 세워 세계 장애인 화가들과 교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작품활동을 통해 다른 대회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다”면서 “앞으로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이 장애인 작가들을 후원하는 사업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나라 기자

## 국립광주과학관 16~17일 가족캠프

### 오늘까지 선착순 모집

국립광주과학관이 여름방학을 맞이해 다양한 과학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가족캠프를 마련했다.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별빛누리관에서 운영하는 여름밤 우리 가족캠프는 1박 2일 숙박형 프로그램이다. '코딩으로 하는 탐탐사', '날아라 에어로켓' 등 전문을 주제로 한 교육·체험 프로그램과 전시관 관람이 마련됐다.

또한 국립광주과학관 별빛천문대의 1.2m 주망원경과 고성능 천체망원경을 통해 여름밤 하늘을 직접 관측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모집은 14일까지 국립광주과학관 온라인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선착순이다. 유치원생 이상 자녀가 포함된 2~6인 가족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여름방학 가족캠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광주과학관 홈페이지(www.sciencecent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나라 기자

www.aroma-life.co.kr

**Aroma Life**

기능성 속옷의 명가 | (주)아로마라이프

# 기능성 속옷의 名家

쾌적/편한/예쁜/기능성 속옷은 “정말” 있습니다.

<p>아모라이온</p> <p>브라+슈트+거울 5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p>	<p>아모라이온 통바디</p> <p>브라+슈트+거울+래깅스 5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p>	<p>비비드아모르</p> <p>래깅스+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p>	<p>아실리 바디슈트, 슈에프, 루디아</p> <p>블랙온사 바디 슈트의 온사 레이스 품평회 1등</p>
---	---	---	--

1.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5개국 특허 체워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2.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3.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가공 원적외선 효과

흔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광주본사 | 전문상담 및 사업 문의: 1588-2219 | 명품관(사적문의): 070-4909-4660 |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235 V&G빌딩 서울본점 | 전문상담 및 사업 문의: 02-882-4569 | 명품관(사적문의): 070-7726-1100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축복빌딩